

■ 설 연휴 임시 개통 압해대교... 찾길로 고향까지

“가까워진 고향길 자주 와야죠”

“태풍 걱정 사라져” 귀성객 4배 늘어

“이젠 태풍과 눈보라가 불어닥쳐도 고향에 갈 수 있어 좋아요.” 명절 때면 태풍과 눈보라 때문에 고향을 지척에 두고 선착장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신안군 압해면 귀성객들이 올 설에는 고향집까지 한걸음에 내달렸다.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압해대교가 설 연휴 기간 임시 개통됐기 때문이다.

목포시 산정동과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를 잇는 길이 3.56km의 압해대교가 임시 개통되면서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예전에는 목포 북항에서 철부선을 타고 1.5km의 뱃길을 가야했지만, 이젠 연륙교를 통해 2~3분이면 고향 압해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9일 귀경길에 오른 정모(42)씨는 “서울에서 승용차로 10시간 이상 왔다 1시간이 넘게 목포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린 뒤 고향에 도착하면 온 가족이 ‘복조’가 됐다”면서 “압해대교가 개통돼 고향 오고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반겼다.

박은정(여·41·광주시 남구)씨는 “다리가 임시 개통됐다는 소식을 들



설 연휴 기간동안 목포시 산정동과 신안군 압해면을 연결하는 압해대교가 임시 개통됐다. 지난 9일 압해도 등 신안 섬 지역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압해도 송공항에서 목포행 셔틀버스를 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 5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며 “기상이 악화되면 고향을 눈 앞에 두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압해대교 임시개통 소식에 귀성객들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배를 타고 압해도를 찾은 귀성객은 6천400여명, 차량은 3천200여대, 올해는 2만3천여명, 5천500여대의 차량이 다녀갔다. 귀성객 숫자면에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압해대교 개통을 앞두고 압해·팔

금·자은면 등 인근 도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압해도의 경우 압해대교 개통 이전에는 목포 북항이나 목포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야 했다. 뱃길이 각각 24km, 50km로 1~2시간 가량 배를 타야만 했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 압해면 송공항에서 배를 타게 되면 20여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신안군 자은면 주민 김은식(50)씨는 “목포에서 배를 타면 1시간30분이

나 걸렸는데 이젠 배타는 시간이 30분이나 줄었다”면서 “압해도와 압해면을 연결하는 ‘새천년 다리’도 건설된다고 하니 진짜 욕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분에 주민들이 들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압해대교는 지난 2000년 6월 착공했으며 교량 총연장 3.56km(해상교량 1.42km, 육상교량 0.42km)와 접속도로 1.72km로 사업비 2천98억원이 투입돼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서 ‘소망 열차’ 힘차게 달린다

승객 200여명의 꿈 함께 싣고 출발

‘큰 아들 건강하고, 딸 순산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꼭! 승진 시켜 주세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오후 광주역 3번 플랫폼. 광주발 서울행 1426호 무궁화호 열차가 승객들의 소망이 빼곡히 적힌 플래카드를 달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코레일 광주지사는 지난 1일부터 광주역에 ‘소망 플래카드’를 설치해 승객들이 새해 소망을 적도록 했다. 5일동안 모두 200여개의 소망이 플래카드에 담겼다.

이날 ‘소망 열차’를 운행한 ‘소망 전도사’는 전형무(55) 주기관사와

이두원(42) 부기관사, 전 기관사는 115만km를 무사고로 운행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으며, 이 기관사도 40만km의 주행기록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전 기관사는 “그동안 지구를 스물 아홉바퀴 돈 것과 같은 거리를 달렸지만, 오늘 달리는 300여km의 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승객들의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마음을 정성스럽게 싣어 나르겠다”고 밝혔다.

플래카드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우리 식구 잘살았으면, 건강했으면’ 처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오후 광주역 플랫폼에서 백종천 코레일 광주지사장과 광주역 관계자들이 승객들의 소망이 적힌 플래카드를 보면서 웃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올해는 10kg 감량’ ‘박사 꼭 붙자’ ‘나의 꿈 사육사, 꼭 이루어지길’ 등 개인적 희망도 담겨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힘내세요’ ‘대운하보다는 서민경제’같이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글도 눈에 띄었다.

오후 2시 50분 출발 준비를 마쳤다. 안전점검팀의 무전소리가 들려왔다. 소망열차는 새해의 희망을 알리는 기적소리를 내뿜으며 플랫폼을 빠져 나갔다. /인현주기자 ahj@

고속도 23중 추돌... “자식 안 온다” 찾길 불

설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은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교통사고 속출=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9시30분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미향마을 앞에서 임모(50·목포시 산정동)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김모(68·해남군 송지면)씨의 1t 화물차를 추돌해 승합차가 타고 있던 박모(58)씨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9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남대 정문 앞 사거리에서 ‘전남73바12×호’ 105번 시내버스(운전자 한모·51)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들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박모(여·55·북구 문흥동)씨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담양~전북 고속도로로 상행선 32.6km 지점에서 귀경 차량이 빙글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23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다.

한편, 이번 설 연휴(6~10일)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8건(사상자 50명)으로 지난해 70건(“ 130명)보다 45.7% 감소했다. ◇이따른 화재·1명 숨져=10일 오

전 6시 20분께 나주시 평산동 전남지방경찰청 83기동중대 숙소에서 불이나 숙소에서 있던 의경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7일 낮 12시에는 영광군 흥농읍 S목욕탕에서 불이나 정모(여·38)씨가 숨졌다.

또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소재동 최모(65)씨 집에서 최씨가 “명절인데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며 찾길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자살, 안전사고도 잇따라=10일 새벽 4시께 여수시 돌산대교 위에서 남상용 검은색 구두와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누군가 돌산대교에서 투신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해역을 수색중이다. 앞서 9일 오후 여수시 돌산대교 밑 교각 부근에서 문모(여·5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오후 2시3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에서 할아버지 집을 찾은 김모(3군)인 1m 깊이의 마을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지난 6일 밤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A아파트에 사는 김모(19)양이 대학 진로 문제로 고민하다 목숨을 끊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신정아 사건’ 이후 ‘짹짹 사범’ 215명 적발

대검찰청은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하반기(8월~12월) 전국적으로 학위·자격증 등 위조사범 특별단속 결과 215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를 받는 신정아씨와 가까워 필리핀 신학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27명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 보면 6명이 학력위조를

통해 대학교수로 임용됐고, 논문대필을 통해 학위를 받은 석·박사 6명도 포함됐다. 또 52명은 토의 상적표나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교수채용 절차 등에서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개인이 제출하지 않고 기관끼리 직접 보내는 방안과 정무나 대학교육연합회 등에서 각종 학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한적 범위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 총 맞아 범인 사망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쏘아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권모씨의 아내 정모씨와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4천300여만원의, 세 자

녀에게 각 2천500여만원의 지급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나원침 (7428) 김종두



다중주택·신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온라인 다툼이 실제 주먹질로

○20대 여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현피’를 벌이다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인터넷 게임 중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불러내 주먹을 휘두른 송모(여·22·북구 운암동)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

○송씨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서모(여·21·서구 농성동)씨를 광주시 북구 M초등학교로 불러내 서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송씨는 경찰에서 “서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로 착각하고 게임 중 게임방을 개설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조사결과 경찰에 신고한 서씨도 사기혐의 수배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승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26 / 061-722-0100